

>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9.2원 상승한 1,211.7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국내 증시 불안으로 급등했다.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은 1,200원선으로 소폭 하락해 출발했으나 이후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며 빠르게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이 6% 가량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외인의 자금 이탈을 유발하는 한편 달러 매수 심리를 강화해 달러-원 환율은 1,210원선 위로 고점을 높이며 전일 대비 9.2원 상승한 1,211.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닷케이 지수 역시 크게 폭락하며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해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 환율은 전일 대비 10.93원 상승한 1,077.64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 환율
		1200.10	1211.70	1200.00	1211.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70.26	1084.96	1065.29

> 금일 전망

중국 증시 움직임 주목하며 1,200원대 후반 등락 전망

금일 환율은 유가 급등으로 하락해 출발한 이후 중국 증시 향방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5.0원 하락(스왑포인트 고려)한 1,207.5원으로 마감하였다. 지난 주말 동안 국제 유가가 12%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완화해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 금일 환율은 미 소매 판매 지표 호조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1,2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춘절 이후 첫 개장하는 중국 증시의 움직임과 금일 발표가 예정된 중국 1월 무역수지 결과에 따라 환율은 장중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금일 중국 증시에 반영될 경우 달러화는 1,210원선 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채권 역송금 수요에 대한 경계감 역시 달러에 지지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98.60 ~ 1215.60 원
------------------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017.03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0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5973.84, +313.66p(+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6.5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501 억원

주의사항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